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대책마련 '총력'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와 피해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농업인의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오는 8월 7일 개최한다.

정부혁신의 참여협력 가치를 반영하는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부처 관계관, 대학교수,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과수화상병 소개, 국내 화상병 역학조사 현황, 화상병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등 분야별 5주제에 대한 발표와 과수화상병 예방과 종합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과수화상병 소개 및 국외 발생현황(경희대학교 오창식 교수)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및 방제현황(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홍성준 농업연구사) ▲국내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식

물방제과 이상진 검역관) ▲과수화상병 진단 및 연구개발 방향(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이영기 농업연구사) ▲화상병균 이해필수 10선(단국대학교 김성환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 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쇄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 배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첫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발생면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배 과수원 1곳을 비롯해 현재(8월 7일 기준)



전국 174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발생면적은 122.9ha에 달한다. 발생지역은 용인1, 과주1, 이천3, 안성12, 연천3, 원주2, 충주74, 제천61, 음성7, 천안10곳으로 전라북도에는 아직 발생지역이 없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와 협력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제(매물)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오염원이 과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처요령에 관한 현장실천사항이 수록된 홍보물(리플릿)을 배부하고, 발생과원(매물지)에 사과, 배, 복숭아 등 장미과 식물과 기주식물을 제외한 대체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예방체계 정비와 방제 강화 등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 방제기술 및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기반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연 29억 원씩 5년 간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에 적합한 화상병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수출입 중단 등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내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의 신규 및 연장 시 최고 2.0% 이내로 금리 감면, 대출 만기 도래 시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기한 연장을 해준다.

특히 대출 신규와 만기 연장은 업체당 최대 20억원 총 1,00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원금 상황이 도래할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엔화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변동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개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번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조사결과, 도내 주력산업 관련 기업체 1,344개 중 약 3.5%에 해당하는 47개 사가 일본 부품을 핵심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뿌리·기계 산업 관련 업체 22개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해 영향이 없으나 화

학 관련 11개 업체, 탄소관련 5개 업체, 전자 부품관련 3개 업체 등은 직접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앞서 지원 외에도 김종원 여신전략본부 수석부행장을 지원 단장으로 각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신속히 구성하고 피해 업체들 파악과 금융애로 사황을 접수 받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각 시군과 긴급자금 지원 특별 협약 및 특별보증 취급기관 협약 등을 통한 간접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개선 프로그램인 '상생기업 Win-Win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 할 방침이다.

김종원 부행장은 "일본이 부당한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기업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 거래와 무관하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지원 또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통한 피해구제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NH농협은행,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Challenge+ 2기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NH디지털 Challenge+'에 참여할 2기 스타트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NH디지털 Challenge+는 선정된 기업들에게 초기자본 투자 및 홍보·법률·재무 분야 등의 컨설팅과 후속 투자기회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자본을 연계 지원하는 A(Accelerating)트랙과 ▲스타트업의 팀 빌딩 및 성장을 위한 입주프로그램을 지원하는 B(business incubation)트랙으로 구성된다.

이번 'NH디지털 Challenge+' 2기 모집은 금융(Fin-Tech), 농업, 임업, 식품업, 부동산, 주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혁신 분야의 명확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후속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성, 사업성, 시너지 부문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NH디지털 Challenge+ 2기 선발 기업에게 국내 금융권 최대, 최고 수준의 펀데크 특구인 NH디지털혁신캠퍼스(서울 서초구 소재)에 사무실을 제공하며, 업계 상위권 벤처투자사인 크레비스파트너스와 함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본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나, 향후 사업연계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이 여름 방학을 맞이한 초·중고교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서와! 한농대 문화체험은 처음이지?'

한국농수산대학, 여름방학 맞이 무료 문화체험행사 열어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여름 방학을 맞이한 초·중고교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체험행사 '어서와! 한농대 문화체험은 처음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방학을 맞이한 지역 내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혁신도시 지역 민과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 상생·이해 한농대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무료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기회를 확대해 농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지난 2차례 진행한 행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행사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체험행사는 한농대 졸업생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과 쌀을 이용해 동물 송편, 채소머핀, 오색 꼬치를 만드는 '아빠, 엄마 우리 같이 먹어요', '내 손으로 만드는 생화장식, 양초, 친환경 천연가방 만들기 체험', 손뽕정리(네일아트), 책가게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병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달 28일까지 주2회(화,수) 진행하며, 체험신청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전화(☎063-238-9650~9653)와 방문(한농대 도서관)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올 1분기 하위 20% 근로소득 7.7% 늘어... '소주성 효과'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의 분기별 소득 수준을 측정할 경우 하위 20%(1분위)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7.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14.5%나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1인 이상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을 분석했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1년 1분기 20만원 수준이던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 9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1분위 가구에서 65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50.8%→2019년 66.2%)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저소득층의 구직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에서 무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2.3%, 2016년 64.9%, 2017년 67.8%, 2018년 69.7%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에는 66.2%로 떨어졌다.

전체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도 2018년 1분기 66.8%에서 올해 1분기 67.4%로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상위 5% 최상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계층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소주성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로 중하위 소득 계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경기문화의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계층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소주성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노인 일자리 재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 전환하고 가구간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